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제228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중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남형주(재경국)
- 박형순(동아애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프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시아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정기성(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939)

채널A 개국 7년,
변화와 혁신은 계속됩니다.

개국 7년을 맞은 채널A는 날이 새어
워지고 있습니다. 때가 넘치는 젊은 기
자·PD의 과감한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
이고, 동아미디어그룹의 지원은 아낌이
없을 것입니다. 잇단 수상 소식으로 빛
을 발하고 있는 동아일보와 채널A의 콘
텐츠 파워도 이어가겠습니다. 신설되는
'크리에이터 협의회'를 통해 사내 구성
원의 콘텐츠 제작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
갈 것입니다. 3주간의 알찬 교육을 마치고
첫 발을 내딛은 신규 입사자 27명을
응원합니다!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채널A는 지난 7년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세련되고 젊은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젊은 PD들이 주도한 <도시어부>(1), 2049의 폭발적인 공감을 이끌어낸 <하트시그널 시즌2>(2), 2014년 입사한 정현수 PD가 메인연출을 맡은 새 드라마 <열두밤>(3), 젊은 기자들의 활약상이 눈에 띄는 <뉴스A>(4).

채널A 7주년... “다함께 퀀텀점프 해요”

‘Young Forward’ 앞세워 끊임없이 새로움 추구 젊은 기자·PD들에 기회 주고 과감한 도전 장려

개국 7주년을 맞이한 채널A가 더 세련되고 젊은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1년 12월 1일 개국 이래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해 온 덕분이다. 젊은 기자와 PD의 과감한 도전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프로그램이 쏟아졌다. 콘텐츠 연계 상품과 행사로 외연을 확대하며 채널A 브랜드의 가치도 높였다.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

‘영 포워드(Young Forward)’를 앞세운 채널A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했다. 지난해 매체 설명회에서 ‘채널A 시즌2’를 표방한 이후 틀에 박힌 방송 문법을 피하고 과감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올해 채널A 프로그램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다.

11월 10일 첫 방송된 <보컬플레이>는 국내 최초 아카펠라 음악 예능을 표방하고 있다. 악기 없이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꾸미는, 이제껏 보지 못한 기획이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워 주요 유튜브 영상에 영문 자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초 ‘천문 예능’이라 불린 <우주를 즐겨>는 ‘힐링예능’으로 평가받았다. 일반인들의 미묘한 러브라인을 추리하며 2049세대의 폭발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던 <하트시그널>은 시즌2도 통했다. 3월 16일 첫 방송을 시작한 시즌2는 시즌1의 인기를 넘어섰고, 방송 당시 9주 연속 비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를 지켰다.

긴 호흡의 스토리텔링으로 심층성을 더한 보도본부의 ‘더깊은뉴스’팀은 후면 다큐멘터리 <더깊은뉴스 ‘동행’> 제작에 도전했다. <더깊은뉴스>의 확장판으로 고용위기, 국가유공자 지정, 인구 감소, 불합리한 의료규제 등 각각 12분이 넘는 4개의 영상을 온니버스 식으로 엮었다. 추석 연휴 기간에 편성돼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달했다.

‘젊은 피’에 기회를

늘 새로움과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젊은 피’들의 활약과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6년 만에 재개한 드라마 <열두밤>의 메인연출은 2014년 입사한 정현수 PD가 맡았다. <열두밤>은 4년차인 그의 입봉작이다. 기존 드라마 문법에서 벗어나 감각적인 영상미와 흡인력 있는 스토리로 새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되기 전 이미 일본에 판매됐고, 최근 동남아시아에도 판권이 팔렸다. 낚시 예능의 새 지평을 연 <도시어부> 또한 채널A 젊은 PD들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주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지상파를 압도하는 고공 시청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도본부에서도 젊은 기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앵커로 전면에 나서 생생한 뉴스를 전하고 있다. 올 7월 론칭한 <사건상황실>을 비롯해 낮 시간의 메인뉴스를 표방하는 <뉴스라이브> 등 모두 젊은 감각으로 활약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도 ‘이철호의 저용량티비’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유튜브 스타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젊은 사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과감한 도전을 장려하는 것은 동아미디어그룹의 조직문화, 인재경영 철학과도 맞아 있다.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동아미디어그룹의 저력을 만들어 낸다.

‘콘텐츠+α’로 브랜드 외연 확장

채널A는 콘텐츠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커머스에 앞장섰다. 시청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좋은 영향을 줬다.

젊은 세대에게 공감을 이끌어 낸 <하트시그널> 브랜드를 뷰티 상품에 접목해 마스크팩 2종(하트마스크, 시그널마스크)을 출시했다. 또 시즌2 입주자들이 착용한 것과 같은 <하트시그널> 후드 티셔츠, 맨투맨 티셔츠 등 ‘굿즈’를 자체 온라인쇼핑몰 ‘오티티닷컴’에서 판매했다.

앞서 <개밥주는 남자 시즌2>도 프리미엄 펫 브랜드 ‘굿벨런스’를 론칭하며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콘텐츠의 재미를 넘어 사회의 이슈를 반영한 행사를 열어 채널A 브랜드의 외연을 확장했다. 동아일보와 함께 국내 최대 창농 박람회인 ‘2018 A FARM SHOW(에이팜쇼)’를 성황리에 치렀고 이와 연계된 보도본부의 ‘청년 농부’ 시리즈도 각광을 받았다. 낚시예능 <도시어부> 흥행이후 관심이 높아진 국내 최대 해양수산 박람회 ‘2018 씨팜쇼’(동아일보·채널A 공동주최)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안주영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현수

광화문-상암동 사옥 앞 숫자 ‘7’ 콘셉트로 풍성한 이벤트

출근길 커피-샌드위치에 ‘지문 프린팅 포토존’까지 설치

“커피랑 샌드위치 받아주세요~”

11월 30일 아침부터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로비는 임직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채널A 개국일인 12월 1일 보다 하루 앞당겨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와 상암동 DDMC에서 다양한 7주년 기념행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출근 시간에는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점심시간대인 오후 1시~2시에는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에서 직접 임직원들에게 음료와 샌드위치를 나눠줬다. 이날의 주인공들을 위해 사

옥입구부터 카페트럭까지 레드 카펫이 깔렸다. 추운 날씨에도 임직원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개국 7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불꽃놀이를 형상화한 그림 위에 직접 직원들이 지문을 찍어 모양을 완성하는 ‘지문 프린팅 포토존’도 마련됐다. ‘임직원들의 DNA가 모여 채널A가 완성된다’는 의미를 반영하듯 많은 임직원들이 앞다투어 지문을 찍었다.

행운의 추첨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경품도 제공됐다. ‘럭키세븐업 뽑기’에서 행운의 공을 뽑은 사람들에게는 채



11월 30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앞에 설치된 카페트럭에서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이 직원들에게 음료와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있다.

널A 대표 기념품 ‘도시어부 우표’ 등이 상품으로 주어졌다. 또 임직원 모두에게 7주년 기념 행운의 복권을 나눠줬다. 복

권 당첨자 총 7명은 각 10만 원의 상품권을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이기원

冊, 冊, 冊... 저술-출판으로 전문성 키우는 기자들

현장 경험에 날카로운 시각 차별화... 브랜드 가치 높여 '크리에이터 협의회' 도입해 제작활동 적극 지원하기로

동아미디어그룹 기자들이 적극적인 저술·출판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 이에 맞춰 동아미디어그룹은 '크리에이터 협의회'를 도입해 사내 구성원의 콘텐츠 제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콘텐츠 제작이 사내 구성원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역량강화이자 콘텐츠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외활동이라는 생각에서다.

전문성 담긴 책 잇달아 출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을 한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 최근 동아미디어 그룹의 대표 외교안보 전문기자들이 동시에 책을 출간했다. 북한학 박사인 동아일보 국제부장인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한 편집국 디지털뉴스팀 신석호 팀장은 '오바마는 왜 트럼프처럼 김정은을 다루지 않았을까'를, 북한 김일성종합대 출신으로 2002년 한국에 온 편집국 국제부 주성하 기자는 평양의 속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평양 자본주의 백과사전'을 각각 내놓았다. 생생한 현장 경험에 날카로운 시각을 더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벌써부터 외교안보 분야의 필독서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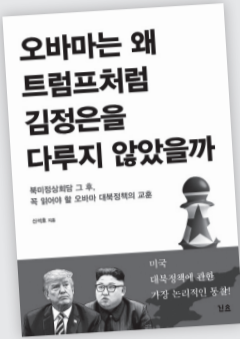
책을 쓴 기자들은 저술·출판 활동이 지면이나 방송에 담기 힘든 긴 호흡의 콘텐츠를 다룰 수 있고, 자신만의 시각과 관점 등을 오롯이 담을 수 있어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총 4권의 책을 쓴 신석호

팀장은 "그동안 동아일보 기자로서 외교안보 분야를 공부하고 취재한 흔적이 책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일제 시대 강제징용의 비극을 담은 '기록되지 않은 기억 군함도' 저자인 출판국 신동아팀 이혜민 기자는 "과거사 문제를 나만의 전문 분야로 삼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취재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출간된 책들은 개인 브랜드를 강화하는데도 효과적이다. 30년 넘게 우리말을 다듬고 바루는 일에 파고들었던 편집국 어문연구팀 손진호 부장은 2014년 1월부터 3년 3개월간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손진호 어문기자의 말글 나들이'를 엮어 '지금 우리말글'을 내놓았다. 책 출간으로 우리말 연구 전문가로서 입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도본부 디지털뉴스팀 이영훈 팀장은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 등을 '노래와 역사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조명한 '유행가는 역사다-노래로 읽는 한국현대사'를 내놓았다. 20여 년 동안 정치, 사회 분야의 굵직한 사건을 취재한 기록을 담은 '특종의 탄생' 저자인 미디어연구소 뉴스연구팀 조수진 부장은 "기자로 살아오면서 마음의 빔을 진 취재원들에게 책을 보냈다"며 "'기자 조수진'의 삶이 담긴 책은 기사 바이라이나 방송 출연 이상으로 개인 브랜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크리에이터 협의회' 콘텐츠 제작 지원 동아미디어그룹은 구성원의 콘텐츠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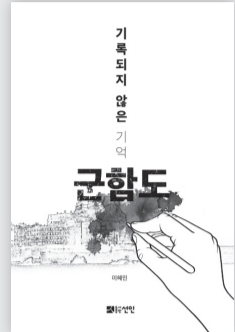
동아미디어그룹 기자들이 2018년 하반기에 출간한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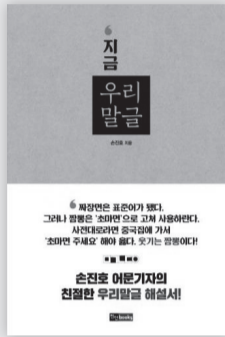
신석호 팀장의 '오바마는 왜 트럼프처럼 김정은을 다루지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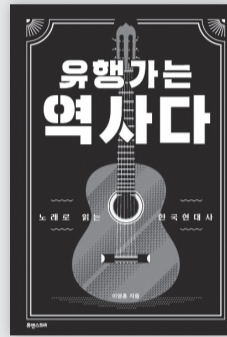
주성하 기자의 '평양 자본주의 백과사전'



이혜민 기자의 '기록되지 않은 기억 군함도'



손진호 부장의 '지금 우리말글'



이영훈 팀장의 '유행가는 역사다'



조수진 부장의 '특종의 탄생'

작 활동을 몰심양면으로 돕기 위해 '크리에이터 협의회'를 새롭게 도입한다. 동아일보 저술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채널A 구성원까지 포함해 적용된다. 과거엔 저술·출판만 지원했던 것을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웹툰 제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018년 11월부터 △자신의 업무 분야 또는 업무 외적으로 창작활동을 진행 중이고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근속한 동아일보·채널A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크리에이터 협의회에 금전·비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크리에이터 지원을 희

망하는 구성원은 지니 결재양식에서 크리에이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콘텐츠 초안과 기획안 등을 크리에이터 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크리에이터 협의회가 인재 육성 차원에서 창작 활동 지원 여부, 지원 종류와 범위, 저작권 등을 심의 결정한다. 크리에이터 협의회는 경영전략실장(협의회장), 인재경영팀장(간사), 인사팀장, 뉴스룸지원팀장, IP법무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허가 또는 지원을 신청한 콘텐츠 관련 팀장이 배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하는 콘텐츠에 경계는 따로 없다.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해 제작한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출판장려금(저자 인세), 저술휴가, 저술지원금(저작물 선인세) 등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업무 관련 콘텐츠 외에 1인 방송, SNS 활동, 웹툰 제작 등 업무 외적인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진다.

각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혜택(지원금 규모, 휴가일수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손영일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남하나

“백혈병을 이겨낸 의학전문기자가 꿈”

황승택 기자, 백혈병 투병기 출간... 인세 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

“무균실에 스타퍼 놓고 운동하는 환자는 처음 봤다니가요.”

지난 4월 세브란스병원 암병동 간호사는 황승택 기사를 향해 혀를 내둘렀다. 두 번째 골수 이식 수술을 앞둔 환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씩씩해서였다.

보도본부 경제부 기자로 일하다 백혈병이 발병한 황 기자가 이번엔 3년 간의 투병기를 담은 책 <저는, 암병동 특파원입니다>를 펴냈다. 투병기인데 문체는 유쾌하고 따뜻하다.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과정도 긍정의 힘으로 써내려갔다.

그는 글쓰기를 통해 투병생활의 고립감에서 벗어나 삶의 의지를 다졌다. “글을 써야 한다는 의무감이 몸과 정신이 힘들 때 저를 지지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병상에서도 그는 기자였다.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해외 통관 절차로 늦어지자 배경 취재에 나섰다. 같은 병동에서 만난 중동인 친구를 통해 중동의 의료복지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입원 중인 병원에서 화재가 나자 현장에서 보도본부에 전화 연결할 생각부터 했다. 그의 꿈은 이제 백혈병을 이겨낸 의학전문기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 백혈병 투병기인 <저는, 암병동 특파원입니다>를 쓴 황승택 기자.

“이식 직후 사소한 합병증으로 단기간 입원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상체력의 75% 정도 수준까지 회복했어요. 내년 6월 복귀가 목표입니다.”

초판 2000부가 모두 판매돼 추가 인쇄 1000부에 들어간다. 황 기자는 이 책의 인세를 모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황 기자는 “주변의 큰 도움을 받았던 만큼, 저도 사회에 보답하고 싶었다”며 활짝 웃었다.

보도본부 경제부 이남희

DAMG 야구팀 기자협회 야구대회서 2년 연속 3위

소속과 직급을 넘어 단합해 저력 보여줘... “내년에는 반드시 우승” 각오 밝혀

동아미디어그룹 야구팀(이하 DAMG 야구팀)이 제3회 기자협회 야구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대회 연속 3위를 차지하면서, 동아미디어그룹이 축구는 물론 야구에서도 강호로 자리매김했다.

DAMG 야구팀은 11월 17일 고양시 일산 NH인재원 야구장에서 벌어진 경향신문과의 3, 4위 결정전에서 8대 6 승리를 거뒀다.

재경국 구매팀 차기는 과장이 선발 투수로 나서 5이닝 6실점(자책 2점) 4삼진 완투를 펼쳤다. 타석에서는 감독 겸 선수인 편집국 스포츠부 이현재 차장이 4타수 3안타 2타점, 4번 타자로 나선 콘텐츠기획본부 이수연 피플팀 유재영 차장이 3타수 1안타 3타점 활약을 선보였다.

앞서 DAMG 야구팀은 조별리그에서 연합뉴스와 jtbc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고 이어진 8강전에서 YTN을 맞아 12대 6으로 승리했다.

매경미디어그룹과의 4강전에서 5회초까지 11대 10으로 앞서갔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5회말에 2점을 내주면서 11대 12로 패배해 결승



11월 17일 경기 고양시 NH인재원에서 열린 기자협회 야구대회 3-4위전 경기 중 동아미디어그룹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진출이 좌절됐다.

기자협회 야구대회는 올해로 3회째다. 총 12개 언론사가 참가해 매주 주말 경기를 펼쳤다. DAMG 야구팀은 동아일보 편집국과 채널A 보도본부 기자뿐 아니라 PD, 미디어 경영직 등 다양한 직군의 사원 15명으로 구성됐

다. 선수들은 소속과 직급을 넘어 동아미디어그룹 일원으로 단합해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구팀 선수들은 2년 연속 3위에 오른 만큼, 내년에는 축구처럼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DAMG 야구팀 이건혁

償, 償, 償... 다시 한번 빛난 DAMG의 콘텐츠 가치

편집국 '신예기' 등 취재-편집-사진 부문 연이어 수상 채널A 보도본부 '청년농부' 시리즈로 대통령표창 받아

올 가을 동아미디어그룹의 콘텐츠 파워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에서 영향력 있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취재뿐 아니라 편집, 사진 등에서도 수상 소식이 줄을 이었다. 수상자들은 "수상 자체보다 의미 있는 콘텐츠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 뿌듯하다"며 "앞으로 더욱 분발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

동아일보는 취재·사진·편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이어갔다. 특히 법조팀이 특종 보도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재판거래 의혹 추적보도'를 시작으로, 창간 98주년을 맞아 진행된 '신예기(新禮記)' 시리즈와 정

치부의 '미 재무부, 한국 7개 은행에 대북제재 경고'까지 8-10월 세 달 연속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손해배상 추적보도와 신예기 기사는 모두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 "저널리즘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손해배상 소송 재판거래 추적보도 기사가 나간 후 13년 동안 묵혀왔던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본보 기사가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신예기 시리즈도 성차별적 친인척 호칭 문제, 친가-외가 차별적인 기업의 상호복지문제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신예기 기사는 '제20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까지 수상해 기쁨을 더했다.

사회부 서형석 기사는 국회 교통안전대포럼이 주최하는 '2018 선진교통안전대

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회부 김자현 기자가 8월 27일 보도한 '장애인 주차 못하게 전용칸 좁힌 주민들' 기사와 정책사회부 박은서 조유라 기자가 10월 4일 보도한 '개와 교감하고 VR로 직업체험...교실서 세상과 소통하는 법 배운다' 기사는 각각 장애인저실천운동본부로부터 8월과 10월의 좋은 기사로 뽑혔다.

사진부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보도사진상 포트레이트 부문 최우수상에 사진부 최혁중 기자의 '美 옥타곤서 증명하겠다 '코리안 좀비' 살아있음을'이, 피플인터뉴스 부문에 사진부 김재명 기자의 '내가 아닌가?'가 선정됐다. 출판사진부 지호영 차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5회 대한상의 사진공모전'에서 도심 뒷골목 작은 호프집에서 직장인들이 하루를 마감하는 모습을 담은 '퇴근 길엔'으로 대상을 받았다. 사진부 장승윤 기자와 출판국 김성남 부장도 같은 공모전에서 각각 언론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이외에 편집부 김남준 차장은 한국편집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24회 한국편집상'을 받았다. 또 동아일보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 보여 온 관심과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문화대상'에서 단체부문 대상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전 관련 부문에서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추구하고 다양한 제도 변화를 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채널A <청년 농부> 시리즈로 대통령 표창
채널A 역시 잇단 수상을 통해 콘텐츠 영향력을 확대했다.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 김현지 차장은 11월 11일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농업인의 날 유공 대통령 표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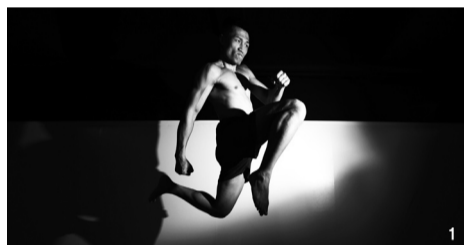
동아일보가 창간 98주년을 맞아 시작한 '새로 쓰는 우리 예절-신(新)예기(禮記)' 시리즈가 제337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을 수상했다(1). 한국체육기자연맹의 체육기자상 기획부문 수상작으로 뽑인 '쇼미더스포츠' 보도(2).

수상했다. '청년 농부' 시리즈 등을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조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30 세대의 재기발랄한 사례를 대거 발굴해 시청자의 흥미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끌어냈다.

보도본부 스포츠부 김도형, 김유빈 기자의 '쇼미더스포츠'는 한국체육기자연맹의 3분기 체육기자상 기획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쇼미더스포츠는 스포츠종목에 대해 과학적 특성과 원리를 체험 형식으로 풀어낸 시리즈다. 드론과

슈퍼슬로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방송뉴스가 스포츠를 다루는 새로운 문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두 기사는 스킨스쿠버, 골프, 트램펄린 등 다양한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며 몸을 사리지 않고 리포트를 이어갔다. 김도형 기사는 "생소한 종목까지 직접 체험하면서 재미있는 리포트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영상취재, 그래픽, 편집까지 각별한 노력을 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뉴스팀지원팀 정지영



최혁중 기자의 '美 옥타곤서 증명하겠다 '코리안 좀비' 살아있음을'(1), 김재명 기자의 '내가 아닌가?'(2), 지호영 차장의 '퇴근 길엔'(3).

친환경 솔선수범하는 DAMG

태양광 랜턴에서 텀블러까지 '친환경 기념품' 라인업 추가 단순 재활용 수준을 넘어 디자인 가미해 새로운 가치 창출

동아미디어그룹이 '업사이클링(Upcycling)' 친환경 기념품 라인에 신규 제품들을 추가했다.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 등 새로운 가치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동아미디어그룹은 폐신문지를 재활용해 제작된 연필과 버려지는 외벽 광고 현수막을 재가공한 업사이클링 파우치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최근 동아미디어그룹은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는 세계적 움직임인 "NO 플라스틱, 플라스틱 ZERO" 운동에 맞춰 친환경 기념품 라인에 '텀블러'를 추가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THINKS GREEN, ACTS GREEN"란 친환경(eco-friendly) 문구를 새겼다. 텀블러 사용을 독려하는 스티커를 별도 제작해 텀블러 패키지 상자에 붙이는 등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의미를 강조했다.

또 다른 친환경 기념품인 태양광 랜턴은 오직 태양광으로만 에너지가 충전되는 아웃도어 랜턴이다. 재난지역 혹은 낙후지역에서 전기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됐다.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어 건전지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보호와 함께 최근 유행하는 캠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만든 친환경 텀블러(위). 오직 태양광으로만 에너지가 충전되는 태양광 랜턴(아래).

피크닉 등 아웃도어 트렌드에 맞춰 선보인 기념품 라인이기도 하다. 랜턴의 탄생 배경과 의미를 담은 책자도 랜턴과 함께 증정하고 있다.

경영전략실 콘텐츠브랜딩팀 장옥진

'스마트시티로 그리는 신도시 미래' 300여명 귀 쫓긋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 개최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이 11월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 인사들과 주요 건설사 임직원, 지자체 관계자, 학생 등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은 매년 부동산 규제개선, 건설금융 도입 등의 시의적절한 주제를 발굴해 관가와 민간 건설사 등의 관심을 받아 왔다. 올해는 '스마트시티로 그리는 신도시의 미래'란 주제로 열렸다. 최근 정부가 서울 근교 '미니 신도시' 4, 5곳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뒷받침하는 제안들이 쏟아졌다. 특히

새로 만드는 신도시에 한국식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해 앞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 수출상품으로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돼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강연 내용이 흥미로워 눈을 땔 수 없었다. 그만큼 유익한 내용이 많아 경영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기업들이 아 파트를 짓고난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산업2부 박재명



11월 7일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황중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마스터플래너가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이제 현장에서 등직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수습기자-PD 27명 입문-직무교육 마치고 수습 실무교육 동기와 함께 하는 제주 워크숍에선 미래의 자기 모습 공유

청각 자극을 극대화해 수습기자-PD의 일상을 표현한 ‘수습 ASMR’, 감여정 복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에 임한 심리를 유머러스하게 상상해 만든 ‘친절한 여정씨’...

11월 14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3분 분량의 짙막한 영상들이 상영됐다. 웃음과 감탄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온 이 영상제는 수습기자-PD들이 직무교육 중 배운 영상 촬영과 편집 실습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수업 제목은 ‘스마트폰 촬영과 이해’. 신규 입사자들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하리라는 판단에 올해 신설된 과목이다.

동아미디어그룹에 입사한 27명의 수습기자-PD들은 10월 29일부터 3주에 걸쳐 입문·직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신규 입사자들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회사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멀티미디어에 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신규 입사자들은 동아미디어그룹의 역사를 알고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입문교육을 먼저 받았다. 신문박물관·윤전기·상암 DDMC 견학, 전북 고창 인촌선생 생가 방문이 포함됐다. 직무교육에는 실무에 꼭 필요한 기사 작성, 영상 편집, 제작 프로세스 이

해 등이 시간표를 빼곡하게 채웠다. 사회에 첫 걸음을 댄 신입 입사자들을 고려한 사회생활 꿀팁 전수 시간도 있었다. 사내 강사를 적극 활용해 회사의 특성과 업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선배가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후배가 안면을 익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교육의 마지막 일정은 2박3일의 제주 워크숍이었다. 수습기자와 피디들이 현업에 배치되기 전 동기들과 추억을 쌓고 입사할 때의 포부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정이었다. 각자 미래의 꿈을 그리며 만든 ‘행복 꿈나무’를 조별로 공유하면서 서로의 공통점과 특징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미션은 동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여줬다. 중문쇄달해수육장과 에

코랜드에서는 워크숍에 동행한 김재호 사장과 ‘A-man’을 표현하는 사진을 구상해 찍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11월 22일 편집국·제작본부·보도본부로 나뉘어 수습 실무교육에 들어간 수습기자·피디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건강한 수습 생활을 보낼 것을 다짐했다. 동아미디어그룹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따뜻한 동기애로 뽕뽕 뭉친 이들이 현업에 뿌리내릴 첫 날이 시작됐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강은지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계동의 인촌 김성수 선생 고택에서 동아일보 및 채널A의 수습기자와 PD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에서 하트시그널 맥주를”



세븐일레븐에 입점한 리토벨 맥주.

〈하트시그널〉 맥주로 유명한 체코 프리미엄 라거 맥주 ‘리토벨 클래식(Litovel Classic)’과 ‘리토벨 모라반(Litovel Moraban)’이 전국 9500여개 매장의 세븐일레븐(7-Eleven) 편의점에 입점하는 등 유통채널을 늘려가고 있다. 리토벨은 동아미디어그룹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인 동아인터내셔널트레이딩이 수입한다.

‘리토벨 클래식’은 향기로운 풍미와 씹쓸한 홉 맛의 밸런스가 어우러진 오리지널 정통 체코 맥주이다. 황금빛 컬러와 하얗고 풍성한 거품이 시각을 자극한다. 알콜도수는 4.2%로, 마시기에 부담이 적고 목넘김이 부드럽다. ‘리토벨 모라반’은 모라비아 지역을 대표하는 맥주로, 맥주를 따를 때 생기는 두터운 거품이 눈을 즐겁게 한다. 알콜도수는 4.5%로, 보다 강렬한 향과 여운을 느낄 수 있다.

다유넷 콘텐츠커머스팀 김정수

東友는 몸신이다

허벅지 근육 강화하는 ‘펜싱 런지 스텝’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부위는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서 키울 수 있는 근육의 절반이 허벅지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으로 허벅지를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혈액 내 포도당이 넘칠 때 포도당을 흡수, 저장하여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허벅지 근육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동우는 몸신이다〉에서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런지 스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양 발을 어깨넓이로 벌려줍니다. 앞 쪽 무릎은 90도로 굽혀주고 뒤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펼쳐줍니다. 이 때 양 팔은 허리에 올려놓고 뒤쪽 발은 바깥쪽을 향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앞쪽 다리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뒤쪽 발만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다시 들어옵니다. 2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ichannela.com)를 통해 자세한 운동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노수아



① 다리를 충분히 벌린 상태에서 양 무릎을 90도로 만들고 기마 자세로 앉습니다.



② 왼쪽 발을 앞으로 보내고 무릎을 7자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 때 양 팔은 허리에 두고 뒤쪽 발은 바깥쪽으로 쪽 펼쳐줍니다.



③ 앞으로 보냈던 왼쪽 발을 다시 원위치시키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④ 같은 동작을 반대쪽 다리도 반복해 줍니다. 양쪽 다리 20회씩 3세트 반복해 줍니다.

첫 ‘사랑의 나눔 바자회’에 임직원 113명 참여

채널A는 11월 26일부터 이틀간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9층에서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처음 열린 행사였지만 113명의 임직원들이 총 273점의 물품을 기부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

바자회와 경매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김재호 사장은 아사히 신문 사

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일본 고급 사계 ‘다쓰리키 준마이다이긴조’를 경매 물품으로 기증했고, 16만 원에 낙찰됐다. 경매 및 기부물품은 모두 판매됐고, 460만 원이 넘는 수익금 전액은 푸르메재단과 벡스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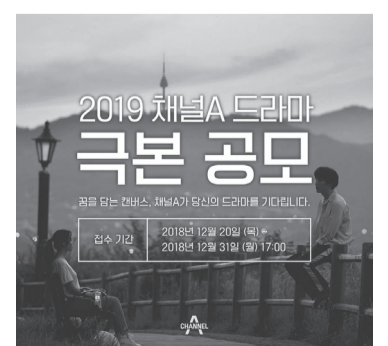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김우준



11월 26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9층에서 열린 채널A의 ‘사랑의 나눔 바자회’ 행사에서 직원들이 물품을 둘러보고 있다.

채널A 드라마 극본 공모, 널리 알려주세요

채널A가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드라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신인, 기성 작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대상 5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접수기간은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수상작은 내년 2월에 발표한다. 수상작은 채널A 미니시리즈로 제작해 편성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채널A 홈페이지(ichannel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본부 제작1팀 마태희



채널A 드라마 극본 공모 포스터.